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른 초기 학교적응의 차이\*  
Early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Depending on Their Perceived Cause of Entering Institution\*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강사 이강이

박사과정 성미영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Soon Hyung Yi

Lecturer : Kang Yi Lee

Doctorial Course : Mi Young Sung

● 목 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V. 참고문헌     |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early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Subjects were 118 primary school children in 15 child-welfare facilities in Seoul(56 first and 62 second grade children; 66 boys and 52 girls).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Duncan test. Measures of school adjustment included relationships with teachers, relationships with peers, attitudes on school atmosphere, and observance of school regulation.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d the highest scores in relationships with teachers, but lowest scores in relationships with peers. Institutionalized children who perceived economic problem as the cause of entering institution showed lower adjustment scores in relationships with pee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chool adjustment depending on sex, bu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s on school atmosphere depending on grade.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I. 문제 제기

아동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편안해하고, 성공하게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학교적응(노봉련, 1997; 황경미,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큰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학교적응은 학교에서의 성취를 결정지으며(Rafferty & Shinn, 1991) 이러한 학업성취와 학력은 이후의 직업 선택이라든가 인생 진로 및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주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환경 요인이다.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가정불안은 아동의 학교태도 또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결국 아동의 학업성취로까지 연결된다(김연주, 1996; 박소혜, 1995; 정병태, 1998). 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학동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학교적응에서 학습준비도가 중요하게 지적됨(유안진, 1999; Morrison, Storino, & Anthony, 2000)을 고려할 때, 초기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정환경 및 부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반아동에 비해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못 받았거나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시설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실제로 시설아동 및 시설청소년이 흔히 보이는 낮은 학업성취와 성취동기(노봉련, 1997; 조은미, 1984)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학교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와 격리된 경험을 가지는 시설아동은 사회적 연결 토대(bonding)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무관심 또는 냉담한 성격을 보이거나,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것에 대한 응어리로 인해 일탈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어린 시설아동이 처음으로 사회적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적응의 문제를 조기에 조사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설아동이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보일 경우,

비로소 충분한 학업을 통한 학업성취가 가능해서 궁극적으로 시설아동의 자신감이 고취되고 이후의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는 발판을 제공받는다. 그런데 학교 또는 학업에 대한 흥미와 호감이 형성되는데 있어서는 초기 학동기의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 즉, 아동이 학교생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초기 학교적응의 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설청소년의 학교적응이나 낮은 학업성취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기초실력 부족 문제(노봉련, 1997)를 고려할 때,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학동기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전혀 없다. 다만 시설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에서의 학습시간이라든가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한 실태 조사(노봉련, 1997; 박영준, 1996)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며,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학교 생활 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을 잘 못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설청소년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업성취상의 지체가 많이 나타나며 특히 어릴 때 시설에 수용될수록 학업 지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노봉련, 1997; 윤광현, 1993). 이는 시설 아동의 학교적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진 결과, 학업성취에서도 지체가 나타날뿐더러 그 정도가 더욱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실제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의 정도가 낮아지는지, 그리고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저하가 어느 시점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학년에 따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변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가정의 지속적 빈곤은 여아보다는 남아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Bolger, Patterson, Thompson, & Kupersmidt, 1995;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적응 수준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된 바가 없다. 그나마 시설보호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해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노봉련, 1997; 박영준, 1996; 윤광현, 1993)은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1997년 11월의 구제금융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실직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내지는 가족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98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은 총 9,292명으로 97년 6,734명보다 38%나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연간 5백여건 정도이던 시설보호의뢰 건수가 98년 8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실직이나 이혼, 부모가출 등으로 인한 기아와 미아 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는 것이 최근의 두드러진 경향(세계일보, 99년 7월 15일자)으로 지적된다. 특히 30~40대 가장을 둔 가족의 해체가 두드러져서, 서울시립아동상담소의 경우 97년에 상담소를 거쳐 아동복지시설로 간 5백명 중 절반 이상이 30대 부모를 둔 아동이었다(조선일보, 98년 3월 17일자). 이와 같은 현상에서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발달단계상 유아기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속하는 아동이 가정의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경제적 문제와 연관시켜 살펴본 선행연구(김광웅, 1998; 박성연, 1998; 어주경·정문자, 1999; 정병태, 1998; 최명선, 1998; 최은영, 1994)는 대부분 저소득층 가정의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아동 또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경제적 문제가 이들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청소년의 주관적인 지각이 다른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사회적 지표로 가정의 빈곤을 지각하여 이들이 우울해지거나 낮은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침(McLoyd et al., 1994)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입소원인 자체보다는 아동이 스스로 지각한 시설 입소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이들의 학교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학교에서의 초기 적응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1·2학년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22개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15개 시설에 입소 중인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총 11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중 1학년은 56명, 2학년은 62명이었으며, 남학생은 66명, 여학생은 52명이었다. 조사대상의 평균 입소기간은 3년 3개월으로, 이 중 IMF 이전에 입소한 아동은 74명, IMF 이후에 입소한 아동은 42명이었고, 이외에 입소연도 기록 부재인 아동이 2명이었다.

### 2. 조사도구의 구성

#### 1) 학교적응 척도의 구성

기존의 선행연구(박영준, 1996; 박현선, 1998;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에서 사용된 학교적응 척도에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하위영

역으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 준수 및 학업성취 영역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척도를 사용한 선행연구의 조사대상이 모두 중고생 또는 초등학교 고학년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기존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특히 학업성취 영역의 경우에는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에서 상대평가의 개념이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아니라 시설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 내용을 대상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하위영역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교규범 준수의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학교적응 척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적응 척도의 문항수는 교사와의 관계 영역(예: 담임선생님이 좋다)이 5문항(5점~15점), 또래와의 관계 영역(예: 학교 친구 집에 놀러간 적이 있다)이 3문항(3점~9점),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영역(예: 수업시간이 지겹다)이 5문항(5점~15점), 학교규범 준수 영역(예: 지각을 한다)이 3문항(3점~9점)으로 총 16문항(16점~48점)이었다. 각 문항은 1점(그렇지 않다), 2점(약간 그렇다), 3점(그렇다)의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값이 .68이었다.

## 2) 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의 범주화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김석산, 1984; 최일경, 1996)에서 주로 제시된 아동의 시설 입소원인은 부모의 불화, 보호자 부재, 경제적 문제 등인데, 이는 보육사 또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객관적인 입소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서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는 아동이 지각하는 내용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아,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왜 시설에서 살게 되었는지를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 아동이 지각하는 입소원인 범주는 기존의 객관적인 입소원인 범주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입소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부모가 보내서 왔다고 응답하는 등 기존의 범주 분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응답이 다수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입소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아동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입소원인에 대한 시설아동의 응답을 다음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범주는 시설에 입소한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예: “내가 말 안 듣는다고요”, “내가 말썽피운다고요.”)이고, 두 번째 범주는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에 입소하게 된 경제적 이유(예: “아빠가 돈벌러 가세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요.”)이며, 세 번째 범주는 주양육자인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지 못해서 입소한 양육자 부재의 경우(예: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가세요”, “엄마가 도망가세요.”)이다. 네 번째 범주는 단순히 부모의 지시로 시설에 입소한 경우(예: “아빠가 보내서 왔어요”, “아빠가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요.”)이고, 다섯 번째 범주는 아동 스스로가 특별히 입소원인을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예: “그냥요”, “잘 모르겠어요.”)이다. 시설아동의 입소원인에 대한 범주화의 내용타당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IMF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입소한 아동과 그 이후에 입소한 아동의 입소원인 지각을 비교해 본 결과(표 1), 다른 범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IMF 이후에 입소한 아동이 IMF 이전에 입소한

〈표 1〉 입소시기에 따른 아동의 입소원인 지각

입소원인	IMF 이전 인원수(%)	IMF 이후 인원수(%)
자신의 탓	6(8.1)	4(9.5)
경제적 이유	9(12.2)	10(23.8)
양육자 부재	25(33.8)	15(35.7)
부모의 지시	12(16.2)	6(14.3)
모르겠음	22(30.7)	7(16.7)

아동에 비해 경제적 이유를 입소원인으로 지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입소원인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이 IMF 이후에 비해 IMF 이전에 높게 나타난 것은, 입소당시 아동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

2000년 1월 28일 S보육원의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질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적응 척도의 일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통해 2000년 2월 7일부터 2월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15개 보육원의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118명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질문지를 토대로 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 되었으며, 통계방법은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추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이 사용되었다.

##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기에 앞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이 보이는 학교적응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총점수는 48점 만점에 38.52점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학교적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영역별 학교적응 양상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 영역은 15점 만점에 13.53점, 또래와의 관계 영역은 9점 만점에 5.84점,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영역은 15점 만점에 12.26점,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 영역은 9점 만점에 6.89점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 점수 비교를 위해 각 영역별 총점수를 총문항수로 나눈 결과<sup>1)</sup>, 교사와의 관계 영역이 평균 2.71점(SD=0.4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영역이 평균 2.45점(SD=0.49), 학

교규범 준수 영역이 평균 2.30점(SD=0.58)이었고, 또래와의 관계 영역이 평균 1.95점(SD=0.6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 1. 학년에 따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이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학년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2>에 의하면,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영역 중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영역에서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학년 아동이 2학년 아동에 비해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2. 성별에 따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의 각 하위영역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학년에 따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1학년(n=56)	2학년(n=62)	t
	M(SD)	M(SD)	
교사와의 관계	13.71(1.90)	13.35(2.59)	0.86
또래와의 관계	5.50(1.77)	6.15(1.81)	-1.96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12.98(2.15)	11.61(2.54)	3.15**
학교규범 준수	6.93(1.88)	6.85(1.64)	0.23
전체	39.13(4.92)	37.97(5.34)	1.22

\*\* p<.01

1) 학교적응의 하위영역별 비중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총 점수를 총 문항수로 나눈 경우 각 하위영역은 1점~3점의 점수분포를 가진다.

### 3. 시설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른 학교적응

시설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추후검정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은 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3>에 의하면,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하위영역 중 또래와의 관계 영역에서 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F=2.4875$ ,  $p<.05$ ). 즉 단순히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왔다고 지각한 아동에 비해 가정의 경제적 이유를 시설 입소원인으로 지각한 아동과 자신의 시설 입소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동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낮은 적응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 영역,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영역, 그리고 학교규범 준수 영역에서는 시설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IV. 논의 및 결론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열악하고 결핍된 환경에 처해있는 시설아동의 경우, 학교적응은 이들의

<표 3> 시설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에 따른 학교적응

학교적응 하위영역	아동이 지각한 입소원인	n	M	SD	F	Duncan
교사와의 관계	자신의 탓	10	14.10	1.37	1.0244	a
	경제적 이유	20	13.65	2.08		a
	양육자 부재	40	13.90	2.18		a
	부모의 지시	18	13.22	2.53		a
	모르겠음	30	12.93	2.29		a
또래와의 관계	자신의 탓	10	6.10	1.85	2.4875*	ab
	경제적 이유	20	5.05	1.23		a
	양육자 부재	40	6.43	1.82		b
	부모의 지시	18	5.89	1.91		ab
	모르겠음	30	5.47	1.87		a
학교 분위기에 대한 태도	자신의 탓	10	12.40	1.84	0.3690	a
	경제적 이유	20	12.70	2.58		a
	양육자 부재	40	12.08	2.59		a
	부모의 지시	18	12.56	1.92		a
	모르겠음	30	12.00	2.70		a
학교규범 준수	자신의 탓	10	6.90	1.20	0.7730	a
	경제적 이유	20	7.40	1.54		a
	양육자 부재	40	6.65	1.94		a
	부모의 지시	18	6.61	1.50		a
	모르겠음	30	7.03	1.90		a

\*  $p<.05$

성공적인 사회적응에 첫걸음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학동기에 접어든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학교적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시설 입소 이유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저학년 시설아동이 보이는 학교적응의 양상을 통해 볼 때, 이들이 학교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인 교사와의 관계와 또래와의 관계가 서로 상반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설아동이 교사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높은 적응 점수는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교사에게 많이 의지함을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뚜렷한 연령차를 보여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은 아동의 행동을 금지하거나 행동의 규칙을 정하는 교사의 권위에 대해 정당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초등학교 고학년생에 비해 두드러진다(강명숙, 1995). 이처럼 교사의 권위에 대한 저학년생의 높은 지각을 고려할 때, 평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보육사를 보호자로 두고 있는 시설아동의 경우 특히 교사의 권위에 대한 지각 내지는 심리적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추론되며, 그 결과 시설아동이 다른 영역에 비해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저학년 시설아동은 학교적응에 있어 또래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대해 위축감을 느끼고 스스로 남보다 못하다는 자기낙인을 부여한 결과를 보인다. 시설아동이 겪는 일반적인 심리적 갈등을 통해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을 살펴본 바(이종원, 1988)에 의하면, 시설아동은 학교에서 느끼는 시설이라는 편견, 남보다 못하다는 차등의식과 외로움을 느낄 때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시설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시설아동으로 하여금 또래에게 다가가는데 상대적 위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시설에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또래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학교로 진학하는 시설아

동은 자신과는 여러 면에서 비교되는 환경을 가진 일반 아동과 한 학급에서 지내게 되면서, 스스로의 자기 낙인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과 교사와의 관계는 수직적 관계로 어린 아동의 경우 교사에게 의지하면 되는데 반해, 아동이 학급의 친구와 맺는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환경의 비교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집단의 영향력과 결속력이 강해지는 고학년생 및 중고생에 비해, 저학년생의 경우에는 아직 또래관계를 맺는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들의 낮은 적응 점수를 설명해준다.

둘째, 저학년 시설아동이 보이는 학교적응은 학년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여서, 1학년생에 비해 2학년생이 학교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아동의 경우 1학년생에 비해 2학년생이 수업시간을 더 지겨워하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며,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 재미있거나 신기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아동이나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시작됨을 반영한다.

시설보호를 받는 미취학 유아와 1학년생의 경우 동일한 연령의 일반아동에 비해 성취동기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조은미, 1984), 이처럼 성취동기에 대한 자극과 격려가 제대로 미치지 못할 경우 학교분위기에 대한 거부와 심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기의 또래 거부가 학년이 증가할수록 학교에 대한 덜 호의적인 지각과 학교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거부 및 수행 수준의 저하를 가져옴(Ladd, 1990)을 고려할 때, 학교분위기에 대한 시설아동의 적응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감소하는 것은 이들이 보이는 낮은 또래 적응 점수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1, 2학년만을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분명한 변화를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제 막 학동기에 접어든 저학년 시설아동이 단 1년의 차이에서도 학

교적응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에는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년에 따른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변화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고생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교 고학년 시설아동이나 시설청소년이 자아정체감이든가 생활적응 수준에서 성차를 보이는 것과는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은 학교적응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적응상의 차이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 행동과 같은 적응 문제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반면, 7~8세까지의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박성연, 1998).

흔히 학교적응과 같은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자아개념이 언급되는데,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이들이 연령상 아직 학교와 관련된 자아개념에서 성차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의 학업 참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Morrison et al., 2000)하는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을 살펴보면, 저학년 시기까지는 아직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생의 자아개념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으며 초등학교 2학년생의 경우에는 신체적 자아개념에서만 성차가 나타날 뿐, 사회적 자아개념이라든가 학업자아개념의 발달에서는 아직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김훈숙·이경옥, 2000). 그러나 학교적응에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의 연령을 확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자신의 시설 입소 원인을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각하는 시설아동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 관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린 아동들도 경제적인 문제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저소득층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가장 강한 부정

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이는 다시 학교에서의 원만치 않은 또래관계와 연관되는 것으로 지적된 어주경과 정문자(1999)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가정의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아동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olger et al., 1995), 생활 보호대상자 가족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최은영, 1994). 경제적 문제로 인한 심리적 갈등은 시설청소년에게서도 나타난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많은 중고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점으로 재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며(노봉련, 1997), 장애문제라든가 학업문제로 고민이 발생하는 이유로 자신의 노력 부족 이외에 자신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경제적인 이유를 많이 지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광현, 1993).

이와 함께 자신의 시설 입소원인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한 채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낮은 학교적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주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여 자신의 입소원인을 잘 알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심리적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결과,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나 현실을 지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자신의 입소원인을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학교에서 또래와 제대로 상호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은 학업과 관련된 성취 및 전반적인 사회적응으로 발전한다는 점에서, 부모로부터의 양육이 결핍되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시설아동에게 학교적응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의 학교적응 양상은 시설아동의 성공적인 초기 학교적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시설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에 있어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시설아동이 의미있는 타인이자 권위의 상징인 교사로부터 성의있고 일관된 인정을 받을 때, 이들은 자신이 학교에서 실제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존감은 결국 이들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긍정적인 기대가 초등학교 아동의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유재련, 1986; Walsh, 1984)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또한 열악한 성장환경에 처해있는 빈곤 청소년의 경우, 민주적 학교분위기라든가 교사로부터 받는 지지를 통해 출신 배경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을 극복할 수 있고, 아니면 적어도 발달 및 의료적 위협이나 우울/포기 성향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서(박현선, 1998),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시설아동이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높은 적응을 보일 경우, 교사는 아동을 바르게 훈육하고 지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의 적극적인 학업 참여를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저학년 시설아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둘째,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맺는 또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Ladd와 Kochenderfer(1996)에 의하면, 학급내 친구관계에서 얻는 정서적 지지, 대인간 기술, 인정 등은 학교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도전적 요구에 대처하는 아동의 능력을 촉진시킨다. 유치원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이 친구의 인정을 받고 있다고 지각할 때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dd et al., 1996). 학교에서의 성공을 위해 아동의 학업참여를 조장하는 보호요인 중 하나로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지적되는 만큼(Morison et al., 2000),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설아동의 낮은 또래 적응 점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아동의 경우, 방과후 시설에 귀가하는 시간이 거의 일정할 뿐만 아니라 학교수업 이외에 과외활동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학업시간 이외에 학교 친구와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적다. 또한 학교 친구가 시설에 놀러온다거나 시설아동이 친구집에 놀러가는 일이 그리 흔치 않기 때문에,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맺게 되는 또래관계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동의 학교 생활에서 또래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아질 뿐더러 지지적인 또래관계를 즐기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학교생활을 잘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또래관계에서 나타나는 시설아동의 낮은 적응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교사는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일반아동과 나누는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줄 필요가 있다. 시설아동이 학교에서 보이는 교사와의 관계와 이에 따른 또래 관계망의 차이에 대한 추후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경제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지각하고 이것이 이들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볼 때, 시설아동의 용돈 문제와 같은 경제 및 소비 생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자녀는 고립감을 느끼고,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며, 자신과 다른 사회적 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회피하게 된다(Jones, 1988). 학교 공부 이외에 각종 학원을 다니고 특별 교육을 받으며 집에서는 학습지를 공부하는 일반 가정의 또래와 비교할 때, 시설아동의 경우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돈이라든가 물질적인 것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상업주의의 폐해가 어린 아동들에게까지 쉽게 번지고 있는 현 세태를 생각할 때, 또래 집단에 의해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없는 시설아동이 또래문화에서 소외되거나 또래관계로부터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느끼는 시설아동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경제적 소외감을 이들의 입소원인 지각과 연관시켜 살펴보았으나, 추후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각이 이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으로까지 확대시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설아동의 초기 학교적응의 실재를 상세히 살펴본 최초의 연구이다. 비교집단이 없다는 제한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소외된 상태로 생활하는 어린 아동들을 직접 면접한 자료를 통해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강명숙(1995). 교사의 권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2) 김광웅(1998). 경제위기와 아동.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 적응,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18.
- 3) 김석산(1984). 육아시설아동의 입소원인분석을 통한 이들의 가정복귀 가능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연주(1996). 가정환경·학교적응·학업성취와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훈숙·이경옥(2000). 아동의 자아개념 발달과 부·모·교사의 자아개념 추론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1), 73~83.
- 6) 노봉련(1997). 시설아동의 학업부진의 원인과 그 대안에 관한 연구-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박성연(1998). 경제불황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및 아동의 적응 행동. IMF 관리체제에서의 아동·청소년 생활변화와 적응, 1998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1~34.
- 8) 박소혜(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 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박영준(1996). 육아시설아동의 생활환경요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1) 세계일보(1998). 7월 15일자.
- 12) 어주경·정문자(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2), 21~40.
- 13) 유안진(199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 14) 윤광현(1993). 육아시설아동 생활지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5) 이종원(1988). 육아시설아동의 성격특성 분석을 통한 생활지도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정병태(1998). 가정불안과 학교태도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7) 조선일보(1998). 3월 17일자.
- 18) 조은미(1984). 시설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19) 최일경(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최은영(1994).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빈곤에 대한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1) 황경미(1998).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 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2)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1107~1129.
- 23) Jones, L. D. (1988).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0, 199~218.
- 24) Ladd, G. W. (1990). Having friends, keep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being liked by peers in the classroom: Predictors of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1(4), 1081~1100.
- 25) Ladd, G. W., & Kochenderfer, B. J. (1996). Linkages between friendship and adjustment during early school transition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6)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27) McLoyd, V. C., Jayarante, T. E.,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28) Morrison, G. M., Storino, M. H., & Anthony, S. (2000). *Teacher and student perspectives on academic engagement related to risk and protective factor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A.
- 29)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 30) Rafferty, Y., & Shinn, M. (1991). The impact of homelessne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6(11), 1170~1179.
- 31) Valeski, T. N. (2000). *Young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teacher, school engagement, and academic performa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in New Orleans, LA.